

‘재해 걱정 없는 보성’ 구축 주력…1천812억 투입

침수·풍수해 선제 대응 안전망 강화
합동TF 구성…쉼터·쿨링포그 가동

보성군이 재해 예방과 선제 대응으로 집중호우·폭염 피해를 최소화했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반복되는 침수와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도시침수예방(400억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7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441억원) ▲소하천 범람위험지역 정비(216억원) ▲급경사지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각 15억원) 등 총 1천81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 효과는 지난달 17-19일 집중호우에서 입증됐다. 복내면에 시간당 88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배수 체계가 정상 작동해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를 막았다.

특히 2020년부터 보성읍에서 추진 중인 ‘도시침수예방사업’은 우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설치로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를 크게 줄였다.

또 지난해 착공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



왼쪽부터 김철우 보성군수가 폭염·폭우에 대비해 복숭아 농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과 무더위 쉼터 방문, 야외 근로자 격려에 나서고 있다.



〈보성군 제공〉

업’은 벌교읍 중도방죽 일대의 하천 범람 위험을 개선해 농경지와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보성군은 재해 대응을 위해 중점 관리 구역 C CTV 19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해 우려 지역과 대형 공사 현장 53곳에는 ‘2인 1조 전담제’를 운영했다. 읍·면장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구와 하천변, 해안가 주민들에 대한 사전 대피 조

치도 시행했다.

폭염 대응에도 나섰다. 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 15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녹차골보성향토시장, 벌교 5일 전통시장, 벌교 매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는 쿨링포그를 가동했다.

경로당 445곳에는 냉방비와 냉방기기를 지원했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원을 투입

해 축산농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과 살수차 운영을 강화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달 11일 폭염 총력 대응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 TF’를 구성, 지난달 29일까지 12개 읍·면을 돌며 무더위쉼터 54곳과 폭염 취약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무더위쉼터 21곳 확대, 마을별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영농 안전 지도, 축산농가 환풍기와 살수시설 점검 등도 추진 중이다.

김철우 군수는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준비’가 중요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과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하늘서 배달된 물회 한입”…고흥군 드론 배송 시연

도시지역 음식·생필품·의약품 공급

고흥군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도양읍 녹동신항 드론배송센터에서 공영민 고흥군수, 박선준 전남도의원, 군의원, 드론업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열고 올해 첫 드론 배송 주문과 배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 약 7개월 동안 항로 개설과 인프라 구축, 배달 웹 개발 등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상하도, 하화도, 득량도, 거금해양낙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4곳의 거점과 12개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흥군이 지난 5일 도양읍 녹동신항 드론배송센터에서 드론 배송 시연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흥군 제공〉

주민들은 고흥군이 개발한 드론 배달 앱을 통해 음식과 생필품, 약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긴급 의약품도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 개시 후 한 달간은 무료 배송이다.

상화도 마을회관에서 시연을 지켜본 주민 20여명은 드론으로 배달된 시원한 물회를 맛보며

“앞으로 섬에서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반겼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은 드론과 우주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섬과 해역을 아우르는 물류 혁신 모델을 선도하고 드론 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담양군-대만 융징향, 미래 농업 기술 교류 맞손

담양군은 6일 “전남 군청 소재원실에서 대만 융화현 융징향과 미래 농업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위석형 융징향장, 김나빈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농업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농가 소득 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지역의 농업 경험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 앞서 융징향 관계자들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첨단 농업 기술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 적용 사례를 논의했다.

융징향은 대만 내 화훼·원예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축향·메



리린 등 우수 딸기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자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첨단 농업 기술과 풍부한

한 경험을 가진 융징향과의 협력이 담양 농업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선진 농업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 옥과시장 경유 버스노선 신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곡성군은 6일 “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남마다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군내버스 노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옥과 전통시장은 곡성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매일 4일과 9일 열리는 다양한 농산물과 생필품을 판매해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자주 찾는다.

이번 노선 조정은 고흥층 등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시장 방문을 돕고 전통시장 상

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유 노선은 시장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특히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춰 배차로 편의성을 높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통시장 버스 경유는 단순한 교통편의 개선을 넘어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옥과전통시장에 정차하고 있는 군내버스. 〈곡성군 제공〉

순천시,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전남도 공모사업…7세 이하 영유아 대상

순천시는 6일 “정규보육 시간 외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전남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천시 연향동 소재 피노키오 어린이집에서 추진되며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규 보육시간 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7시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30분까지 24시간이며,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천원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피노키오 어린이집으로 전화(061-744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장성보건소 “휴대용 방역장비 무료 대여”

3개월간…신분증 지참 방문

장성군은 6일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친환경 소독약품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민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달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형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시설 관계자는 장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061-300-7174)에 연락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방역소독기 사용법, 주



의사항 등 간단한 안전교육을 청취한 후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공공방역 시행과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지원 확대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20% 할인 판매

11일부터…예산소진 시 종료

여수시는 6일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사진) 2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지원의 일환으로, 기존 10% 일반할인에 10%를 추가 지원해 총 20% 할인을 적용한다.

여수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지류형과 카드형을 포함한 월 통합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시 조정한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류형은 기존 7% 할인율이 유지된다.

특별할인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발행액이 모두 소진되면 8월분 카드형 상품권 판매는



종료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chak’ 또는 대형 금융기관 80곳에서 방문 구매할 수 있으며,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여수시 누리집과 ‘chak’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명 여수시장은 “이번특별할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체제된 지역경제 회복의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김전선 기자